



## 국내증시, 변동성 지속 전망에 美 물가지표·기업 실적 '주목'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조짐  
지난주 코스피, 2591.86... 3.35% ↓  
지난달 美 PCE, 예상치 상회 시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도

미국 금리 인상 및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35% 내린 2591.86에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15%(18.56포인트) 내린 841.9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 데다 이란·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점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급등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그간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촉발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4410억원과 코스피 200 선물 2조9395억원어

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해 1조1195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8일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일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ASML, TSMC의 실적 쇼크까지 가세하면서 이달 코스피는 7%나 떨어졌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증시가 1~4%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의 낙폭이 크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중동발 위기, 고환율,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여러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내 증시의 조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당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한 단계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이하 한국 시간 기준)엔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

E)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PCE를 중요 지표로 참고한다. 3월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PCE 가격지수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지난주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매파적 발언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3월 PCE 반등 폭이 제한적이면 3월 CPI의 충격은 진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와 달러화가 안정되면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주에는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SK하이닉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지난달 CP·회사채 발행 줄고, 주식은 늘고

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지난달 기업 직접금융 조달 방식 중 주식이 전월 대비 발행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이 마무리되며 그 규모가 7조6185억원 가량 줄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식 및 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총 20조5241원(주식 1조9053억원, 회사채 18조6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조9560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달 기업공개(IPO)는 5건, 1503억원 규모다. 전월 10건, 1919억원과 비교해 416억원(21.7%) 감소했다. 이른바 '대어급' IPO가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이 작용했다.

주식은 이러한 IPO 규모 감소에도 LG디스플레이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로 전월과 비교해 발행규모가 1조6625억원(68.7%)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로 1조2925억원을 조달한다고 지난달 4일 공시한 바 있으며, 대한전선은 미국 등 현지 공장 확보와 시설 투자

를 위해 4625억원을 조달했다.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 마무리되고, 공사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7조6185억원(29.0%) 줄었다.

일반회사채는 47건, 4조6420억원 규모다. 전월 82건, 8조8590억원과 비교해 4조2170억원(47.6%) 감소했다.

금융채는 전월 대비 22.1%(3조5067억원) 적은 12조3591억원이 발행됐다.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채는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77.4%(1조71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전월의 영구채 발행 증세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채, 기타금융채가 각각 11.6%, 13.9%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90조4498억원으로 전월(96조8867억원) 대비 6조4369억원(6.6%) 감소했다.

CP는 총 27조2966억원으로 전월(34조5242억원)에 비해 7조2276억원(20.9%) 줄었고, 단기사채는 총 63조1532억원으로 전월(62조3625억원) 대비 7907억원 증가(1.3%) 소폭 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디앤디파마텍,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가 3.3만원 확정... 상단 초과

GLP-1 계열 경구용 비만·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디앤디파마텍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2일~18일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밴드(2만2000원~2만6000원) 상단을 초과한 3만3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이번 수요예측은 총 2181개 기관이 참여하며 최종 8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금액은 약 363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3442억원 규모가 될 예

정이다. 전체 참여 물량의 99.6%(가격 미제시 0.6% 포함)가 밴드 상단인 2만6000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중 약 95.5%(가격 미제시 0.6% 포함)의 기관이 확정 공모가(3만3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GLP-1 계열 경구용 비만·MASH 신약 파이프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GLP-1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22일~23일 양일간 청약에 거쳐 5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 올해 실적 '상저하고' 전망... 목표가 상향

metro 관심종목  
셀트리온

'집펜트라'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처방 매출, 올해 3분기 실적부터 확인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약 '집펜트라'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주목되면서,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들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9.57% 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합병 후

발생한 관련 관련 기업인수가격배분(PA)이 분기별 700억원 씩 반영돼 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PP A 상각비 규모가 분기별 70억원으로 감소하고 매출 원가율도 상반기 대비 낮아지면서 큰 폭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의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핵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품목인 '집펜트라'는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펜트라는 이미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유효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아 지난월부터 시장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특허를 등록하면서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도 일부

방어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허헤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집펜트라라 미국 시장 안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집펜트라 처방 매출은 올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휴마라의 PBM(처방급여관리회사) 계약 종료가 순차적으로 돌입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22만원)과 NH투자증권(25만원)도 목표가를 상향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25만원을 유지했다.

최근 발표한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결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추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750억원 규모의 자사주 43만6047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만 총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셀트리온의 주가는 3.57% 가량 급등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중엔시에스,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희망 공모가 범위, 2만~2만3500원

에너지 저장장치 전문기업 한중엔시에스가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엔시에스가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160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원에서 2만3500원, 총 공모금액은 320억원에서 376억원이다. 다음달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뒤, 6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1995년에 설립된 한중엔시에스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창업 초기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했지만,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지난 2021년에 에너지 저장장치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중엔시에스는 ESS·EV R&D 센터를 구축하고, BESS Battery Module, 전력변환기, 이동형 Micro ESS(다기능 축발전기) 등 이차전지 분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ESS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고성능·고효율 수냉식 냉각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과 냉각수공급부품(Mainfold) 등의 개발 및 양산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현재 자체 수냉식 ESS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면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